

‘민주화 어머니’ 배은심 여사...아들 이한열 곁으로

광주 시민사회·정치권 추모 물결 이어져
유가협 이끌며 민주화운동 한평생 바쳐
“민주열사 국가유공자 지정, 뜻 계승할 것”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9일 향년 82세로 별세하면서 광주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추모성명을 내고 “잔인한 국가폭력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남은 삶을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다 바쳤다”며 “편안한 집보다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에 나서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기억했다.

이어 “전국 곳곳의 민주화운동, 인권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며 불의 앞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셨던 시대의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이 땅에 정의의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인권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배 여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김승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렇게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 보내고 싶지 않다”고 황망해했다.

전날에도 배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담

소를 나눴던 김 위원장은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는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날 말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며 “한 달에 3분의 1을 그요에서 서 계셨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살아 계실 동안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못다 이룬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 여사와 자매처럼 지냈다는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평생 한열이를 못 잊으시더니 결국 따라가셨나 보다”고 말했다.

또 “민주열사를 위해 생전에 너무 고생하고 애쓰신 분”이라며 “이제는 늘 못 잊어하던 아들 옆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배 여사님의 존재와 활동은 민주화운동 단계에 큰 힘이 됐다”며 “민주열사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셨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 진보연대도 “민주화를 위한 고인의 삶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민주화의 열망, 약자를 향한 뜨거운 연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영면하시기를 빌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역시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는 어머니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이제 어머니의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 꽃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운동에 인생을 바쳤다.

35년간 ‘이 땅에 다시는 아들처럼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해 민주화 시위·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힘을 보탰다.

그는 1998년부터 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화 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전국의 민주화·인권투쟁 현장을 지켰다.

배 여사는 이러한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9일 별세, 빈소가 마련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한편,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고인을 위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례위원회 명칭은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으로 잠정 결정했다.

빈소는 광주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1분 향소와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 마련됐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10일 오후 7시 광주와 서울 빈소에서 각각 ‘추모의 밤’ 행사가 열린다.

11일 발인을 마치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한 뒤 이 열사가 안장돼 있는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치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티끌 모아 태산’ ...작년 개미 후원금 9천만원

남구 관내 착한가게·착한가정 343곳 기부 결산
경제난 속 이웃사랑 실천, 취약계층 돌봄 큰 힘

광주 남구에서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의 개미 후원자들이 지난해 약 9,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착한 가게 279곳, 착한 가정 64곳 등 모두 343곳이 ‘남구 이웃사랑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들이 지난해 모은 금액은 8,980만 원에 달한다.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의 후원금은 관

내 17개동에서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큰 힘이 됐다.

특히 관내 17개동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년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중장기 상당 부분은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의 후원금이였다.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반찬을 비롯해 참고서와 학용품, 장학금을 지원받거나 인공암벽 등 스포츠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후원금 때문에 가능했다.

또 착한가게 및 착한가정의 후원금은 교복 구입비와 명절 차례음식 구입, 김장김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유용한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의 개미 후원자들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의 후원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채민 기자

북구, 청년공작소 입주 청년기업 모집

28일까지 예비창업자 등 39세 이하 청년 대상

광주 북구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청년공작소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청년공작소 입주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기간이 5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10개의 청년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공간 무상 이용,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북구청 특별마을육성과로 하면 된다.

북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각화주거 재생사업과 더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내 청년공작소 조성사업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달 중 두암주공4단지과 오지주공1단지 상가 지하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 동명동 근대가옥 리모델링 창작·교류 ‘인문공간’ 탈바꿈

광주 동구가 철거 위기에 놓인 동명동 근대가옥을 리모델링해 동구인문학당으로 탈바꿈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954년 건립한 동명동 근대가옥은 한식과 양식, 일식이 혼재해 있는 독특한 구조의 가옥이었다.

동구는 동명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가옥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보존으로 방향을 전환해 인문 시설로 꾸몄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근대가옥 본체는 기존 형태를 살려 전시공간으로 조성했다. 본채 맞은편에는 인문관을 증축해 예술 창작, 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며 공유 부엌도 갖췄다. /김민빈 기자

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